

제 2123 호 | 2022년 11월 27일

새소망교회

2022년 표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1:28)

- 담임목사: 인민권
- 부목사: 임지영
- 교역목사: 김지민
- 교역목사: 송민준
- 집사: 송민준
- 집사: 김사무엘
- 집사: 최윤희
- 집사: 황민준



newhopechurch

예 배 순 서

제 2123 호

11월 27일 2022년

집례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	고개들어	-----	다같이
Precessional Hymn				Congregatio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Congregation
기 도	-----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Congregation
* 봉 헌	-----		-----	다같이
Offering				Congregation
봉헌기도	-----		-----	집례자
Offering Prayer				Presider
차 양	-----	베드로의 기도	-----	여성중창단
Choral				Women's Choir
성 경	-----	1부: 요 20:11-18	-----	집례자
Scripture		2부: 롭 1:14-18		Presider
		3부: John 10:11-18		
설 교	-----	1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	안지웅 목사 (1부)
Sermon		2부: 세가지 방향		안인권 목사 (2부)
		3부: Shepherd Is Calling		Rev. Joe Ahn (3부)
광 고	-----		-----	집례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 송	-----	주의 길을 가리	-----	다같이
Hymn				Congregation
* 축 도	-----		-----	안지웅 목사 (1부)
Benediction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헌금순서는 개별적으로 좌석 통로 입구의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종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종,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중

실천사항 :

- ◎ 매일증거
- ◎ 매일기도
- ◎ 매일순종
- ① 응답(기도)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종)의 통로
- ⑤ 생명(희생)의 통로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지난주 설교 요약

수장절을 지키라 (신16:12-17)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 - 삼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철저히 구원과 관계있다. 무교절(유월절)은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며 칠절절(맥추절)은 성령강림 사건을 말하고 초막절(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 초림 예수님은 복음을 파종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추수를 위한 심판을 위해 오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다. 알곡을 추수하여 곡간에 들여 저장하는 것처럼 천국 곡간으로 데려 가시는 것이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 - 수확하는 과정에 밭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타작 과정이 있다. 타작하는 과정은 가두어 들인 곡식 단을 기구로 타격을 가해 줄기에서 열매를 분리시키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말한다. 타작 마당은 열매를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벧전4:17)

알곡과 쭉정이 -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간의 자세에 있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감사와 원망에 있다. 다같이 흥해를 건너고 다같이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마시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나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적의 은혜 속에 살면서 멸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장절의 때 - 인생의 절대 요소는 시간과 장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시간 요소와 장소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시간적 명령, 장소적 명령이 필수로 등장한다. 인생의 과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면 성공은 물론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든 절기 역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과 생명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생명을 수명으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수장절의 때 -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과거에 살아있었던 것이 맞고 미래에 살 것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다. 현재 죽어있는 사람은 과거에 생존이 미래의 생존도 의미가 없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가 구원이 되고 미래도 구원이 된 것이다. 현재 알곡인 사람이 과거도 알곡이며 미래도 알곡인 것이다.

수장절의 장소 - 시간이 사람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것과 같이 장소도 사람이 정한 장소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 사람의 계획의 장소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장소와 시간이 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의 장소와 시간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장소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생사화복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

공수(빈손)로 보이지 말라 -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출23:15, 신16:16) 제사에는 필수적으로 제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인 경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

공수(빈손)로 보이지 말라 - 빈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며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빈손이나 아니냐가 알곡 신앙과 쭉정이가 신앙을 증명하고 구원의 여부를 증명한다. 알곡 감사는 알곡 축복 알곡 구원, 쭉정이가 감사는 쭉정이가 축복 쭉정이가 구원을 말한다.

주신 복, 주실 복 - 인생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주신 복이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고 주실 복이 아니면 지금부터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절대적인 은혜에 대하여 감사 여부가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은혜가 지속 되느냐 중단되느냐가 감사가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에 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교회 소식

- ⊙ 첫열매새벽예배가 12월 5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있습니다.
- ⊙ 성탄 포인세티아 헌화신청을 구역장을 통하여 이홍분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부 부모님 PTA 모임이 12월 4일(주일) 오후 3시 15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 새생명교육 안내: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새생명교실에서 있습니다.
- ⊙ 예과도르 선교 준비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 ⊙ 학생부 겨울 수련회: 12월 26일(월)-12월29일(목) 장소: Sandy Cove (문의: 송진영목사)
• 온라인 등록: www.themessengeretreat.com
- ⊙ 새벽예배 증보기도팀:
(월)남여선교회 (화)예배팀과 찬양대 (수)금요찬양팀, 영어권찬양팀, 학생부찬양팀
(목)교육부서 (금)청년부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이번주)증보기도 담당: 능력①구역
2. 청소 담당: 11월 27일: 능력①,②구역 / 12월 4일, 11일: 화평①,②구역

<12월 행사>

1. 학생부 부모님 PTA 모임: 12월 4일(주일) 오후 3시 15분 (장소: 소예배실)
2. 첫열매새벽예배: 12월 5일(월)-12월 7일(수)
3. 제직총회: 12월 18일(주일) 오후 3시 30분
4. 성탄축하의 밤: 1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5. 성탄예배: 12월 25일(주일)
6.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토) 오후 11시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일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 일정표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롯데 첫째주: 믿음 ① 구역 : 믿음 ② 구역 셋째주: 감사 ① 구역 : 기쁨구역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한아름 첫째주: 충성 ① 구역 : 충성 ② 구역 셋째주: 능력 ① 구역 : 능력 ② 구역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뚜레쥬르 첫째주: 사랑 ① 구역 : 사랑 ② 구역 셋째주: 승리 ① 구역 : 승리 ② 구역	<input type="checkbox"/>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은혜 ① 구역 : 은혜 ② 구역 셋째주: 화평 ① 구역 : 화평 ② 구역
--	--	---	--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믿음 ① 구역: 화 6:30 김남형 집사 믿음 ② 구역: 화 6:30 박남식 집사 은혜 ① 구역: 화 8:00 김기범 장로 은혜 ② 구역: 수 6:00 이용재 집사 사랑 ① 구역: 수 6:30 선우수진 집사 사랑 ② 구역: 토 6:30 광규동 집사 능력 ① 구역: 수 7:00 장현숙 집사 능력 ② 구역: 월 8:00 김병호 집사	기쁨 구역: 토 10:30 교회 감사 구역: 수 7:00 최현숙 집사 화평 ① 구역: 수 7:00 송정옥 집사 화평 ② 구역: 수 7:00 유재상 성도 충성 ① 구역: 화 7:30 심준현 집사 충성 ② 구역: 수 7:00 백민경 집사 승리 ① 구역: 화 6:00 강명수 집사 승리 ② 구역: 목 7:00 심화섭 집사
---	---

예배와 모임 시간

- | | | |
|--|--|--|
| <input type="checkbox"/>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30 (영어) | <input type="checkbox"/> 새벽예배: 오전 5:30
<input type="checkbox"/> 금요찬양: 오후 8:00
<input type="checkbox"/> 구역예배: 오후 7:30 | <input type="checkbox"/> 청년부 제자훈련: TBA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input type="checkbox"/> 주일 학교: 오전 10:30 (주일) |
|--|--|--|

목회 칼럼

행복으로 가는 길

영국의 역사가이자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에 기초한 존재이다. 모든 피조를 가운데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희망 한 가지만은 끝내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그렇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희망없이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어야 할 젊은이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때 청년들 사이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포 세대'라는 말이 나타났다. 그것도 잠시 다시 '9포 세대'라는 말이 들려왔다. 9포 세대란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 외모를 포기 한 세대를 뜻한다.

이제는 9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밀어붙여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휴수저'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많은 노인들이 절망의 그늘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과 노인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절망과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학교든 일터든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일가족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진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지만 한국은 31.2명이다.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되며,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의 5배 이상이 된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약 130만 명으로 이는 3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는 경제 문제도 정치, 사회 문제 때문도 아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문학상인 풀리처상을 받았던 마가렛 하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중군기자로 미 해병대와 함께하며 갖은 고생을 다했다. 해병 5중대에 소속되어 취재를 하다가 한 번은 참호 속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 있는 그 속에서 벌벌 떨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서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마가렛 기자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Just give me tomorrow"(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절망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의 문제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기관 조사결과 30-40세대의 78.6퍼센트가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을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라는 소문만 듣고 뉴질랜드 땅에도 20년 동안 이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갔다. 그러나 이민자의 반 이상이 실패하고 돌아갔다.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한 사람, 현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가정들도 많다.

픈 소문을 따라 뜬 구름 잡듯 행복을 좇아 갔던 사람들이 심중팔구 실패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기만 하면 행복과 미래가 보장된 지상 천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풍요로운 복지국가가 아니다. 평안과 소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만이 참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 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